

 경상북도	보도자료 【19. 10. 13(일)】	담당부서	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			
		작성자	과장	전규영		
			팀장	윤희열	주무관	허봉기
		연락처	054-880-4213			

도민과 함께 「도청신도시 둘레길 걷기대회」 개최

- 도민 3,000여명, 천년숲, 단풍나무길, 원당지 4km 함께 걸어 -
- 가수 축하무대, 어린이 놀이마당, 사진전 등 다채롭게 열려 -

경상북도는 12일 오전 9시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도민 3,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‘2019 도청신도시 둘레길 걷기대회’를 열었다.

201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이날 행사는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, 안동상공회의소, 예천군변영회가 주관하여 신도시와 안동시·예천군의 상생발전과 화합,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됐다.

금년에는 도청 단풍나무길, 원당지, 천년 숲을 걸으며 도청 주변의 변화된 모습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선정했다.

이철우 경상북도지사, 안동시장, 예천군수, 안동시·예천군 도의원 등 3,000여명의 참가자들은 300만 도민의 화합,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등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「화약, 에어샷」 퍼포먼스를 가졌다.

이어 걷기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지사와 함께 해피댄스로 몸을 풀고 약 1시간에 걸쳐 둘레길을 걸었다.

행사를 마친 후에는 가수 문희옥, 우연이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텔레비전, 세탁기,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품 추첨도 있었으며, 본 행사장 건너편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불기, 비누방울 놀이도 펼쳐졌다.

행사를 주관한 안동상공회의소와 예천군변영회는 행사장 입구에서 입장하는 참가자들에게 생수·빵·과일도 제공했다.

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“도청이전 4년차 신도시는 상주인구 2만명을 넘었고, 병원, 학교, 교통 등 정주여건도 속속 개선되고 있으며, 조금 늦더라도 유럽 등 해외의 잘된 사례를 보고 도청신도시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” 며

“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. 잘 조성된 천년 숲 황톳길을 가족, 친구들과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자” 고 강조했다.

.

□ 행사개요

- 일 시 : 2019. 10. 12(토) 09:30
- 장 소 : 새마을광장
- 주 최 : 도, 안동시, 예천군
- 주 관 : 안동상공회의소, 예천군번영회, 영남일보
- 참석인원 : 3,000명 정도(지사님, 안동시장, 예천군수, 도·시군 의원, 포럼위원장(신현수), 영남일보 사장 등)
- 걷기코스 : 새마을광장→잡아센터→원당지→천년숲→새마을광장

□ 시간계획

시 간		내 용	비 고
09:00 ~ 09:30	30'	식전공연	
09:30 ~ 10:00	30'	인사말씀, 기념촬영, 퍼포먼스, 준비운동	지사님 영남일보 사장
10:00 ~ 11:00	60'	걷기대회	가수 우연이, 더나은 걷기 동행
11:00 ~ 12:15	75'	식후공연, 경품추첨, 해산	지사님 경품추첨 (세탁기)

□ 대회코스

